

세천저유소 일대 유류오염지역 완전복원 촉구 건의안

우리 동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세천동 옛 미군저유소 일대가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진 바,

저유소 인근에 대전시민의 생명줄인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저유소 내 뿐만 아니라 인근 오염지역까지 완전 정화 복원 대책을 세워 철저하게 복원하길 동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 합니다.

금번 기름유출로 토양오염이 된 세천저유소는 대전시민의 식수 원인 대청호와 불과 1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송유관 시설의 기름유출로 주변지역이 오염되고 기름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지만, 군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 결국 오염의 실체가 확인된 만큼 오염된 대청호의 물을 먹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으로 귀 부를 원망하는 대전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염사실이 밝혀진 이후 2007년 2월 실시한 국방부의 정밀조사결과에서도 석유계 탄화수소(TPH)와 벤젠·톨루엔·에틸렌·자이렌 수치를 나타내는 BTEX는 10개소에서 오염기준치를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검사지점에 대한 조사 결과일 뿐이며, 주변지역에 얼마나 더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석유탄화수소(TPH)는 비휘발성인 잔류성으로 인체에 유해성분으로 알고 있는바, 정화복원 이후에도 완벽한 복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건의 드립니다.

첫째, 오염지역은 인근에 대전 시민의 젖줄인 대청호가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저유소 울타리 밖의 주변지역과 실개천까지도 완벽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해 부지를 관할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함으로서 공원 등 시민활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유소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당해부지의 무상양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응급복원은 대전시민의 완전한 복원을 바라는 염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 복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완전복원 차원에서도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계속 감시함으로서 복원 후 10년이 지난 후에 잔존하는 기름이 지하에 표류하다가 대청호로 흘러 들어가는 끔찍한 환경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염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 국방부장관, 국방부 TKP사업단장